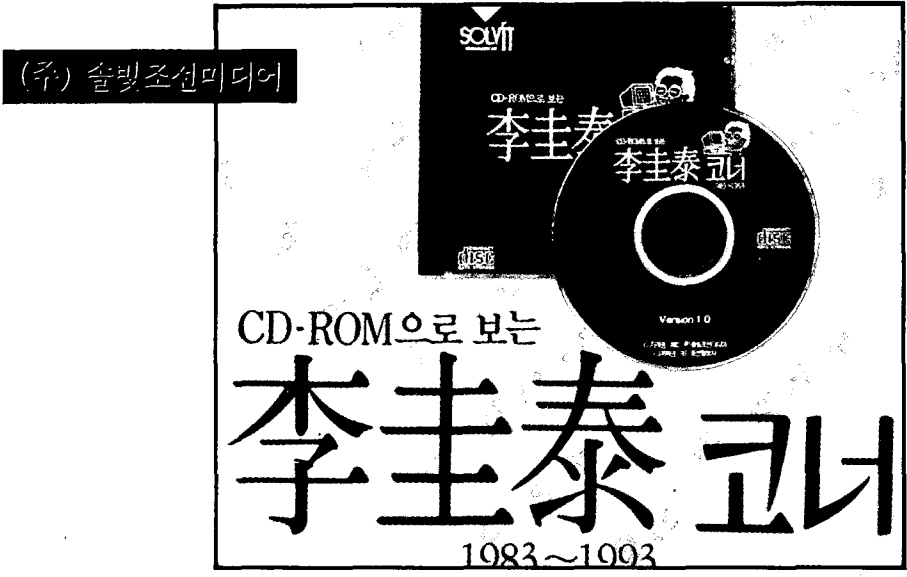


CD-ROM으로 보는 이규태 코너

- 국내최초의 한글로 된 신문기사 CD-ROM
- 1983년이후의 이규태코너 3000회분을 400여장의 사진과 함께 1장의 CD-ROM에 저장



반 짝반짝하는 케이스에 담긴 새 CD-ROM 타이틀을 손에 넣고 시운전을 시작하듯 이것 저것 기능을 실험해보면서 이 구석 저 구석 탐색해 보는 사람의 기분을 오랜 항해 끝에 신세계를 발견한 뒤 탐사에 나선 옛 뱃사람들의 감격과 흥분에 비긴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고자하는 CD-ROM 타이틀의 경우엔 앞서 이야기한 흥분과 기쁨에 견주어 보더라도 아마 지나친 과장이 아닐듯 싶다. 이러한 찬사는 이 타이틀이 국내에서는 '최초'의 한글로 된 신문기사검색을 위한 CD-ROM이라는 넉네임이 붙어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도 선진국에 견주어 볼때 매우 우수하다는 말이다.

앞으로는 최종사용자의 검색편리성에 중점이 두어질 것

외국에서는 텍스트 검색을 주로 하는 CD-ROM 타이틀이 이미 오래전부터 학술연구나 기업활동에 활발히 이용되어 CD-ROM DB의 효용가치가 확산되어왔다. 어렵고 복잡한 검색인터페이스때문에 대개 전문 검색자(최종사용자와 DB를 이어주므로 중개자(Intermediary)라고 불리기도함)를 필요로하는 Online DB와는 달리 CD-ROM DB는 쉽고 친숙한 인터페이스로 설계하여 최종사용자(end-user)들도 어려움없이 직접 사용하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도서관, 정보센터, 기업자료실, 학교, 연구소 등에서는 CD-ROM워크스테이션을 마련해놓고 일반사용자가 직접 DB를 검색하도록 활발히 유도하면서 '중개자를 통한 DB검색 시대'에서 '최종사용자에 의한 직접검색(end-user searching)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자체 개발한 저작도구를 통해 타이틀 제작

이에반해 이제까지, 국내에서 제작된 CD-ROM 타이틀은 한글처리라는 엄청난 벽을 넘지 못해 주로 그림이나 사진, 소리 등 텍스트이외의 미디어를 강조한 제품들이었다. 한글텍스트가 중심이 되는 타이틀을 제작하는데 외국의 저작도구를 사용하기란 불가능하고 국내기술은 아직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솔빛 조선미디어가 「솔빛CD 스튜디오」라는 자체개발한 저작도구를 이용하여 「CD-ROM로 보는 이규태코너」를 발표하였으니 이는 오랜가뭄끝에 단비 내린 격이라고나 할까?

이제 CD-ROM DB에서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 더 이상 남의 나라일이 아니다. 지나간 신문에 실린 이규태코너를 찾아보고 싶을 때 이젠 도서관에 가서 일일이 지난 신문을 들춰볼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편리한 것은 어떤 주제나 고사성어에 관해 쓰여진 기사를 찾고싶을 때, 주제분류를 통해 접근단어만 주면 그 단어가 포함된 모든 기사들을 즉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DB검색의 묘미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0년간의 정치, 사회의 흐름을 PC앞에 앉아 호홉할 수 있을뿐 아니라 한국인과 한국정서가 당대의 시국현안과 관련하여 재치있고 다양한 시각으로 담겨져 있는 지혜와 정보의 보고를 앉은 자리에서 탐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윈도우에서 운용, 신문연재 3000회분이 1장에 수록

「CD-ROM로 보는 이규태코너」는 윈도우에서 운용되며 1983년 3월 1일부터 1993년 2월 23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이규태코너」 3,000회분 본문이 400여장의 관련사진과 함께 CD-ROM 한장에 담겨있다. 이는 2백자 원고지 2만장 또는 책 15권 분량에 해당하는 방대한 정보량이라고 한다. 특히 이규태씨가 직접 등장하여 인사말을 하

는 3분 분량의 비디오로 저자서문을 대신한 것이 이채롭다. 이밖에 이규태코너 3,000회 기념과 관련한 기사모음, 인터뷰, 관계자들의 측사 등도 관련사진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타이틀의 강점은 편리한 검색인터페이스와 강력한 검색기능이라 할 수 있다. 해외의 많은 CD-ROM 기사DB를 접해 보았지만 결코 그것들에 뒤짐이 없으며 오히려 후발주자의 장점을 살려 다른 CD-ROM 타이틀들의 편리한 기능들을 여러모양으로 취합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수록된 기사중 원하는 것을 찾아나서 보도록 하자. 검색방법은 사용자의 요구에 최대한 적합하게 약 5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실제 검색시 키보드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마우스만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기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단계별로 분류된 주제에 따라 검색, 날짜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어

첫째, '주제로 찾아가기'이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생활, 한국인/한국학, 문화/스포츠, 과학, 범죄/사고, 역사/지리, 국제, 인물 등 11가지로 분류된 대주제와 대주제아래 세분화된 74개의 소주제로 접근하여 각 대주제와 소주제에 해당하는 관련기사들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우선 타이틀을 올



이규태코너의 초기화면과 '주제로 찾기'화면

리면 가장 첫화면에 책꽂이에 꽂힌듯한 여러권의 책들이 보인다. 각 책의 옆구리부분에는 정치, 경

제, 사회 등의 주제가 쓰여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11개의 대주제 분류이다. 이 때 원하는 주제가 적힌 책으로 마우스포인터를 위치시켜 마우스단추를 누르면(클릭하면) 그 주제안으로 이동하면서 화면이 바뀐다. 새화면에는 현재 선택된 대주제 아래에 속한 소주제들의 목록과 각 소주제에 해당하는 기사제목들의 목록이 나타난다. 원하는 소주제로 마우스포인터를 이동시켜 클릭할적마다 새로이 선택된 소주제가 노란색글자로 바뀌면서 그 소주제에 해당하는 기사들로 기사제목 목록이 채워진다. 여기서 원하는 기사제목에 마우스포인터를 위치시켜놓고 마우스단추를 재빨리 두번 누르면 (더블클릭하면) 그 기사의 전문이 나오는 기사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화면을 놓고 말로 풀어 설명하자니 다소 복잡한듯 느껴질지 모르지만 화면을 직접 앞에놓고 해본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로 찾는 또한가지 방법은 화면의 제일 위에 나타나 있는 풀다운 메뉴들중에서 '찾기' 메뉴를 선택한 다음 '주제로 찾기'라는 하위메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하면 윈도우 응용프로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이는 대주제 목록상자, 소주제 목록상자, 기사제목 목록상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용자가 우선 원하는 대주제를 선택함에 따라 그에 알맞는 소주제 목록이 나타나고 또 원하는 소주제를 선택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기사제목 목록이 나와서 원하는 기사제목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해준다. 이 선택방식이 앞서 설명한 책꽂이에서 시작하는 '주제로 찾기'와 다른 면은 여기서의 날짜범위로 검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용자가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사를 대상으로만 검색하고 싶거나 1990년 이후의 기사들을 대상으로만 찾고싶을때 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제목을 글자입력과 동시에 찾아낸다

두번째 검색법은 '제목으로 찾기'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특정기사를 제목으로 찾아갈 때 유용한 방법으로 '찾기' 메뉴의 '제목으로 찾기'를 선택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제목으로 찾기'를 선택하면 대화상자가 열리는데 이는 수록된 기사제목이 가나다순으로 모두 담긴 목록상자를 보여준다. 사용자는 이때 목록상자의 스크롤바를 조정하여 원하는 기사제목부근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원하는 기사제목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데 사용자가 어떤 절차를 입력함과 동시에 기사제목 목록은 자동적으로 입력된 절차부근의 제목들로 이동된다. 즉, 사용자가 '농'이라고 입력하는 순간 기사제목 목록은 '농'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기사제목들 부근으로 이동되어있고 '농촌'이라고 치면 '농촌'으로 시작되는 기사제목들이 목록상자에 보이게 된다. 아직도 해외의 대부분 타이틀이 목록 검색시에 글자를 모두 입력한 뒤에 엔터키를 쳐주어야만 목록의 그 글자 부근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야구의 히트 앤드 런 처럼 입력하자마자 동시에 입력된 글자부근으로 달려가는 검색방식은 해외의 타이틀중에서도 일부 뛰어난 제품들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인데 한글 타이틀에서 이 방식으로 접하게되니 정말 반가웠다. '제목으로 찾기'는 주제와 날짜범위에 상관없이 10년간의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실행할 수 있고 주제나 날짜범위를 지정하여 검색대상을 제한시킬 수도 있는데 이는 대화상자안에 담긴 길잡이를 잘 따라가면 마우스를 이용하여 어렵지않게 해결된다.

찾기 원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논리연산을 이용, 신속히 검색기능

세번째 검색방법은 '색인으로 찾기'이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기사의 본문이나 제목에 들어있는 단어로 기사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원하는 단어를 단독으로 또는 연산자('그리고'와 '또는')를 사용하여 그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모두 찾아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백두산 그리고 호랑이'라는 검색식을 실행시키면 교집합 개념으로서 '백두산'과 '호랑이' 두단어를 다 포함한 기사들이 검색된다.

또한 '백두산'과 '호랑이'를 실행시키면 합집합 개념으로서 '백두산'이 들어있는 기사들 모두와 '호랑이'가 들어있는 기사들 모두가 검색된다. 여기서도 또한 주제범위와 날짜범위로 검색대상을 제한시킬 수 있으며 역시 대화상자를 이용하여 마우스로 해결된다. 색인찾기에 의해 검색된 기사제목 목록에서 한 기사를 선택하여 그 기사화면으로 들어가면 기사화면의 하단부에 방금 시행한 색인 찾기 검색식이 아이콘화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방금 떠났던 색인찾기 검색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기사목록중에서 다른 기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색방법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입력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두개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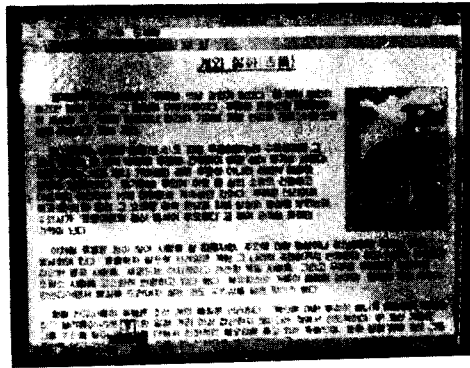
네번째 검색방법은 '날짜로 찾기'이다. 이는 말 그대로 특정기간이나 특정날짜를 지정하여 검색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날짜범위를 지정할 경우에 그 기간중에 게재된 기사제목들의 목록이 수록날짜와 함께 목록상자안에 보이게되며 거기서 직접 원하는 기사를 선택할 수 있다.

접근하여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진을 가진 기사제목들의 목록이 나오면 앞서 설명하였듯이 스크롤바로 목록을 이동시키거나 기사제목의 절차를 입력하면서 목록을 이동시켜 원하는 기사를 선택한다.

여타의 윈도우 응용프로그램들처럼 이 타이틀 역시 위에서 설명한 검색방법들을 선택할 때, '찾기메뉴'로 간 다음 다시 하위메뉴를 선택하는 2단계를 굳이 거치지 않고 1단계로 바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화면 상단부에 단추들을 만들어 놓아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예를 들어, '주제'라고 쓰여진 단추를 클릭하면 '주제로 찾기'에 해당하는 대화상자가 바로 나타나게된다.

국내 한글텍스트 검색용 CD-ROM타이틀 개발의 신기원을 이룩

한글텍스트검색용 CD-ROM 타이틀의 시대를 새로이 열었다는 점만으로도 "CD-ROM로 보는 이규태코너"의 출판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하



이규태코너 화면검색 예

날짜범위를 지정하는 방식은 대화상자를 이용하여 전혀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또한 여기서도 주제범위를 지정하여 검색대상을 한층 더 좁힐 수 있다.

400여장의 관련사진이 들어있는 기사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도

마지막으로 '사진있는 기사찾기'가 있는데 이는 사진과 함께 게재된 기사들만 모아놓은 목록으로

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상당히 훌륭한 인터페이스를 갖추었다는 점이 앞으로 한글텍스트검색용 CD-ROM 타이틀의 확산과 활용에 더욱 고무적인 요소로 보여서 흐뭇하다. 물론 모든 사용자의 구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완벽한 검색인터페이스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사실 그러한 인터페이스는 이상에 가까울 것이다) 몇가지 사소한 미비점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장차 업그레이드판에서는 수정되리라 생각된다.